

#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http://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5월 24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시 8:3-9, 104:24-35

제목 : 창조주 하나님 · 위탁받은 인생(4)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④

: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말씀 :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8:9)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  
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오

늘은 성령강림 주일이며 교단 총회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한 주  
일입니다. 그런데 내내 고민이 된 부  
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고민 했을  
까요? 회복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  
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예배 회복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  
니까? 회복의 의미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회복의 영어 단어는 크게 3가지로 사용됩니다.  
영어단어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영어단어의 의  
미가 대부분 성경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회복하다>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recover>입니다. <다시(re=again)+ 완전히  
(co=com) 되다(over)>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의  
사가 환자보고 그 상처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영어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  
릎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난 곳에  
새 살이 돋아나서 상처를 다 덮었을 때 회복되  
었다고 표현합니다.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히  
브리어로는 이럴 때 <라파>를 사용합니다. <여  
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사용되는 단어가 <restore>입니다. <re  
(다시)+store(쌓다)>입니다. 이 단어는 무너진  
곳을 다시 처음부터 쌓을 때 보통 사용합니다.  
복구하다, 회복하다로 번역됩니다. 갈멜산 상  
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고 말했을 때 다시 세우  
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레고 장난감을 갖  
고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  
집이 무너졌을 때 다시 처음 모습의 집을 만  
들었을 때 영어로 restore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사용되는 단어가 <renew>입니다.  
<re(다시)+new(새로운)>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 갱신하다. 로 번역이 됩니다.  
<새로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다쉬>입니  
다. 어원적으로 <나빠진 상태를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나빠지는 상태를 막기 위하여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달(月)>과 어원이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초승달이 떠오르는 것은  
곧 그 달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받아들였  
습니다. 달이 차서 이지러진 다음 다시 새롭게  
떠오르는 것에서 본래 상태로의 회복을 본 것  
이다. 그래서 월삭을 축일로 지켰습니다.

<월삭>을 히브리어로 <로쉬 호데쉬>입니다.  
<로쉬>는 <처음, 우두머리>이며 <호데쉬>는  
<달>입니다. 달의 첫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일은 6월이 시작되는 월삭새벽기도회가 있습  
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진행은 하  
지 않지만 많이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 기도로

6월을 시작할 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에서 말하는 회복이란 의미는 영어단어로 말하면 renew(다시 새롭게 하다)에 더 가깝습니다. 한국교회예배 회복의 날이란 단순히 코로나 19의 이전 상태의 예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영적인 마음의 갱신 즉 회개를 통한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진정한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예배도 새로워집니다. 성령은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다윗은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적인 정신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강림주일인데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이런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려면 우선 나 개인이 드리는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나로 인해 공동체 예배마저도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사과가 한쪽이 시퍼렇게 멍이 들면 그 사과 자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 전에 우선 나 자신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우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가능합니다. 마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시100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예배 시입니다. 한번 시 100편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 구절을 잘 살피면 예배로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에 감사의 기쁨이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에서 즐겁게 찬양하겠다, 2절은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4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고 여호와와 선하심이 대대에 넘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은총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예배가 형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왜 사라집니까?

우선 생각할 것은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돌아보면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즈음은 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힘이 드는 상황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 것도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것 보다 외적인 교회 일들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사직을 잘 감당해야 하는 데, 찬양대 직을 잘 감당해야 하는 데, 안내를 잘 서야 하는 데, 기도 순서를 잘 감당해야 하는 데 설교를 잘 해야 하는 데 영상 봉사를 잘 해야 하는 데 주차 안내를 잘해야 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것에 너무 집중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약해지면 그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 직원들에게 주일 예배를 먼저 철저히 잘 드리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제 스스로도 얼마나 채찍질 하는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성도들을 안내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집중을 먼저 하다보면 예배 그 자체가 소홀해 지기 쉽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은 정말 영적으로 힘

든 싸움입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배를 영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들은 복을 받아 힘차게 살아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갑자기 내가 다리미 코드를 빼고 왔는가? 그때부터 의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 마치고 사람을 만나야 지 어떻게 할 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예배가 시작되면 좋게 만듭니다. 결국은 구원의 감격이 넘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구원의 감격에 가득차서 영적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없었습니다. 정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성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 새끼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 흘림의 은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피 흘림의 은총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일차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성전예배는 출애굽이후부터 체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가서 마음껏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니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성막을 제정했습니다.

이젠 장소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제사법을 제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이니 예배를 돕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제도와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 하셔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거룩하게 드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잘 구별해서 드리라는 말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성전에 올라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성전 예배는 다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공동체의 일입니다. 공동체의 일이란 한 마음으로 같은 정신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순서지가 필요

합니다. 공 예배이니 시간을 잘 지켜서야 합니다. 예배의 부름과 함께 시작됩니다. 늦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다함께 같은 찬양, 같은 신앙고백, 대표기도의 시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는 등 순서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부른 찬송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다 함께 라는 가사가 있어서 택했습니다. "성도여 다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특히 성도들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가 분열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19같은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면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면 못 옵니다. 특히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이상한 사상들이 쳐들어와 성전 예배를 방해한다고 선포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성전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1:6-7입니다. "6.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으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7.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끊어 말갹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고도다."

여기서 말하는 한 민족을 이상한 사상의 흐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땅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사탄적인 악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상이 강하여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나무를 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성전예배를 대적할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요엘은 말합니다. 9-14입니다. "9.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 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10.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으로다. 12.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13. 제사장들아 너희는 굶

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예배가 끊겨지니 복의 통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고통이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런 것들을 보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4에 답이 나옵니다. “14.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와서 드리는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국교회에서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성전예배의 자리를 내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100여일이 지나니 온라인 예배가 몸에 배어서 성전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하는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드리면 되는 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전 예배가 잘 회복이 되면 교회가 잘 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확진 자가 늘어나니 보건 당국은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체육시설 박물관 공원들을 한 2주간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행정 당국 책임자가 교회들이 그동안 잘 협력해 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면서 예배 시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실 유흥업소들부터 먼저 단속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왔다가 확진 자가 나왔다고 하면 교회가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하면서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회서신을 보낼 때마다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잘 회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식당의 교제도 6월 중순부터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예배 와 성전예배 못 지 않게 중요한 예배는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도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롬 12:1-2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함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몸 자체가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죽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터에서 직장 생활에서 삶의 터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함을 실천해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비난을 받은 것 아닙니까? 생활 속의 예배를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을 받았습시다. 그 형상이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 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늘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을 허락하신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성전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 못지 않게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즉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성령이 임해야 제대로 감당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4:23-24에서 말합니다.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